

광주 지자체 고용안정 앞장선다

시 청소요원 74명 전원 정규직 채용 광산구도 기간제 근로자 정년 보장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용역업체 파견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고용 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7개 용역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고용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인건도시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게 청소와 시설관리 등 용역직원 74명 전원을 고용승계해 7개 용역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과거 청사 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불거졌

던 계약직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향후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업체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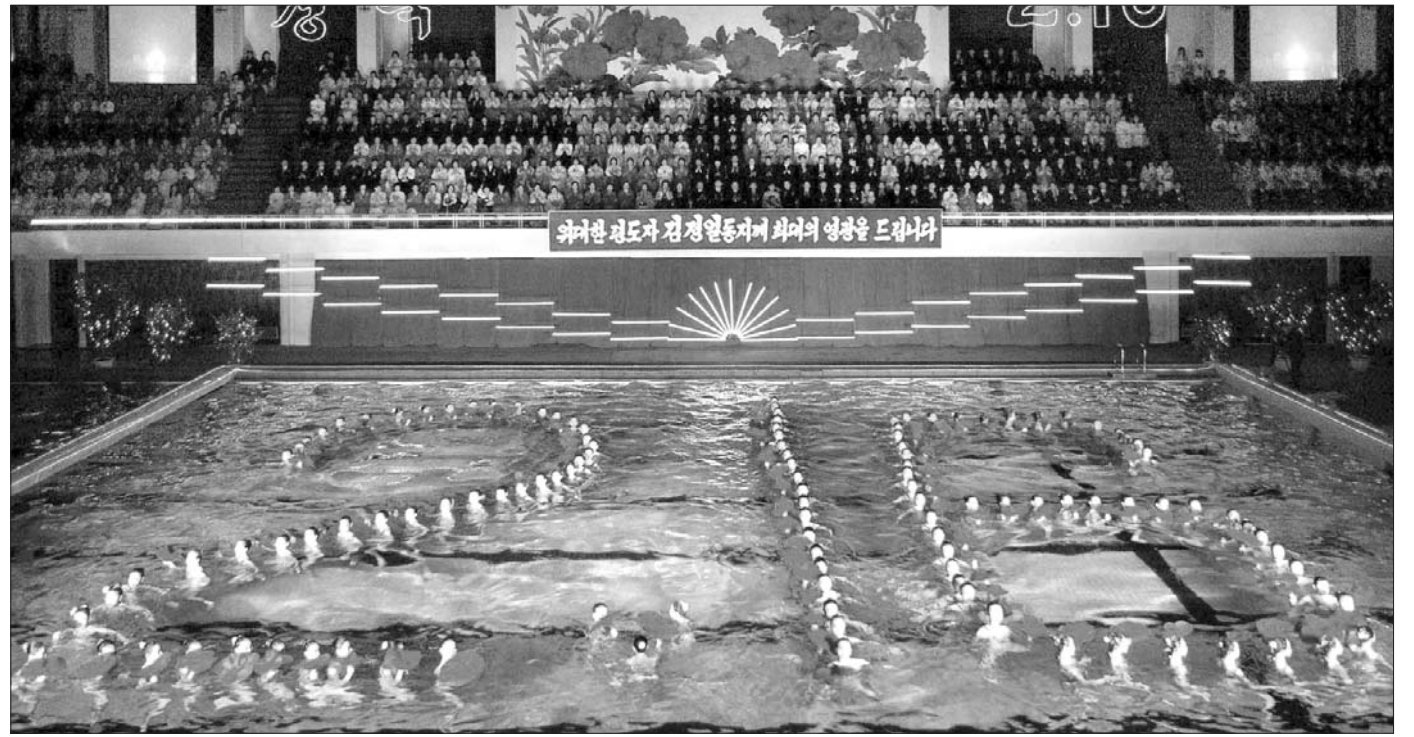
용역업체는 오는 2013년 2월9일까지 2년 동안 시청사 청소, 시설관리, 주차안내, 민원안내, 조경관리, 청사경비 등 6개 분야를 위탁관리하게 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청에서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주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산구 역시 최근 일정 시간 일한 뒤 계약

이 해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에서 2년 이상 상시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자체사업 34명·보조사업 30명) 64명을 근무평가와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1년 이상 구 자체사업에 근무한 종사자 중 보통직종 근로자는 1일 3만53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7290원(21.5%), 가능직종 종사자는 1일 4만3200원에서 5만4900원으로 7290원(16.8%) 각각 인상하기도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는 없으나 행정기관부터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씩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구청에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 역시 같은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김정일 생일 축하 퍼포먼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하루 앞둔 15일 평양 장강체육관 수영장에서 북한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들이 김 위원장의 생일인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反정부” 중동·아프리카 시위 확산·격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정권을 축출한 반(反)정부 시위 물결이 이란과 예멘, 바레인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라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에서는 경제난과 실업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각국에서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바레인·이란·남아공 등에서는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으며, 시위대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동원해 반정부 시위 참가를 촉구하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14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2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지자 시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하마드 빈 이사알 칼리파 바레인 국왕은 희생자에게 예도를 표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히면서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예멘에서도 32년간 장기집권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 5명을 포함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30여년간 집권한 살레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되자 2013년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집권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는 오랜 기간 억압을 받아온 야권단체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테헤란에서는 14일(현지시간) 수만명이 참가한 반(反)정부 시위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5일 테헤란에서 전날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결코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시위대는 이란혁명 32주년이 되는 오는 18일께 추가 시위를 벌이겠다고 집회신청을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바레인·예멘·이란처럼 정권의 퇴진까지로 번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라크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민생과 해결을 요구하는 거리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정부 행정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턱없이 부족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추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라크 역시 부패 척결과 식량난 해소 및 일자리 등을 요구하며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민속문화체험관에 공예창작촌

주변 정비후 관광벨트도 구축

광주 남구가 민속문화체험관에 공예창작촌을 조성한다.

남구는 "옛 대촌 동초등학교에 있는 민속문화체험관에 공예문화 창작공간을 조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이날 오전 광주공예협동조합(대표 최석현)과 협약을 체결했

으며, 오는 4월까지 민속체험관에 소규모 작업실을 조성해 공예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는 또 영세 공예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명의 인력을 투입,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여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뒤 공예 창작촌과 대촌 생태

학습장, 도자기 체험장, 포충사, 고싸움영상체험관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과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공예의 가치를 계승하고 예향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산구, 전투기 소음 피해 강력 대응 ‘전국 피해주민 네트워크’ 참여키로

광주 광산구는 국방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투기 소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데 대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녹색연합이 주관하는 '전국 군소음 피해주민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녹색연합에 보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 피해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벨(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보

다 완화된 85웨벨을 제시해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75~85웨벨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소음기준을 75웨벨로 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광산구에는 75~85웨벨 지역에는 2만3000여명이 거주하지만, 법률안이 규정된 85웨벨 이상 지역 거주자는 8300여명이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북주민 1명 DMZ로 귀순

귀순 북 주민 발견 위치



북한 주민 1명이 15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북한 주민 김모씨가 철원군 김화읍 유곡리 부근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군 장병에게 발견됐고 즉시 귀순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UN 특별보고관 “한국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 등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해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랭크 라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국내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다.

15일 외교통상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라워 보고관은 '모든 인권과, 발전권

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라는 제목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를 이달 초 한국 정부에 문서로 전달했으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10여개 정부 기관이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검토 중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하기는 1995년 방한한 아비드 후

싸인에 이어 16년 만이다. 후싸인 특별보고관은 당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라워 보고관은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일건강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 30분) = 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봉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제일건강 상담전화 TEL 062-672-2002 H.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결제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섭

홈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 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웨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레스토랑	영화, 연극, 공연	일반 홍보용 어플 제작
골프 예약	카페	중고차판매

개발이력

모바일 게임 어플	다크 오브 나이트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팅키'
스포츠 게임	천국	외 다수	
윙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이쿠이 핸드			
몬스터 체이스			
외 다수			

문의 전화 (주)웨이커스 070-7581-7766 010-3549-9358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지역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